

2022-11-21 (2022-41호)

11월 21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낮아진 박스권 굳힐까... 연준 의사록·금통위 관심

서울, 11월2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10월보다는 한층 낮아진, 지난주 거래 구간을 중심으로 레인지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양방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열려둬야 할 듯하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20-1,360원이다.

롱 쪽으로 잔뜩 치우쳤던 달러 포지션이 미국 11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와 10월 물가 지표 결과에 대거 청산된 이후 국제 외환시장의 방향성은 잠시 흐릿해졌다.

이런 가운데 연준 인사들로부터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 지속 시사 발언이 연이어 나오면서 글로벌 달러는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에 달러/원 환율은 1,300원대 초반에서 바닥을 다지며 단기 박스권 장세를 굳히려는 조짐도 엿보인다. 다만, 환율의 양방향 변동성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주중 공개되는 지난 11월 연준 회의 의사록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 해석은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할 재료다.

이번 주초에는 중국 대출우대금리 결정에 시장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쪽으로 정책 방향을 굳힌 가운데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주목된다. 달러 방향성이 둔화된 이후 위안화와의 동조성을 강화하고 있는 원화는 중국인민은행의 금리 결정에 따른 위안 행보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주에는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금통위가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폭넓게 예상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미국 물가 상승률 둔화, 달러/원 환율 급락과 불안한 국내 자금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한은의 매패 색채가 흐려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수정 경제 전망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힘을 더하고 있다.

원화가 이같은 한은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테지만 장 중 변동성을 자극할 요인이 될 수는 있고, 아울러 한은 총재의 환율 관련 발언도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

한편, 관세청이 발표하는 이달 20일 기준 수출입 잠정치에서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통한 외환 수급 완화 여부와 올해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서 외채 추이도 확인해야 할 재료다.

또한, 남·북한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시장 반영 여부도 챙겨봐야 할 변수다.

금주 환율은 굵직한 방향성보다는 국내외 시장 여건 따라 짧은 호흡을 유지한 채 산만하게 오르내리는 최근의 장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1월21일(월)

- 관세청: 11.1~20일 수출입 현황
- 기획재정부: 경제·재정 총괄 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효율화 방안 추진(입법예고) (09:00)
- 기획재정부: 부총리·2차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11:00)
- 한국은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행태 변화분석: 세대별 소비행태를 중심으로 (BOK경제연구 2022-18호) (12:00)
- 한국은행: 2022년 10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00)
- 기획재정부: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관련 주요내용 (15:00)

11월22일(화)

- 한국은행: 2022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한국은행: 2022년 3/4분기 가계신용(잠정) (12:00)
-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19:00)

11월23일(수)

- 한국은행: 2022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기획재정부: 1차관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08:00)
- 한국은행: 2022년 3/4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 (12:00)
- 통계청: 2022년 9월 인구동향, 10월 국내인구이동 (12:00)
- 기획재정부: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2:00)
- 금융감독원: 금감원, Moody's 초청 여전사 리스크 세미나 개최 (16:40)

11월24일(목)

- 한국은행: 2022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 (06:00)
- 금융감독원: '22.10월중 기업의 직접금융조달실적 (06:00)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09:00)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11:10)
- KDI: KDI FOCUS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12:00)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2.11월) (13:30)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13:30)
- 기획재정부: 2022년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 실시 (17:00)
- 기획재정부: '22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 실적 (17:00)

11월25일(금)

- 기획재정부: 2차관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 (09:3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1월21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년	11월		3.65%
11월21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년	11월		4.30%
11월21일	22:30	미국	전미활동지수	10월		0.10
11월22일	18:00	유로존	경상수지	9월		-26.320B
11월23일	00: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11월	-25.0	-27.6
11월23일	18:00	유로존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11월	46.0	46.4
11월23일	18:00	유로존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11월	48.0	48.6
11월23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1월18일 주간		205.2
11월23일	22:00	미국	건축허가 수정치	10월		1.526M
11월23일	22:30	미국	내구재주문	10월	0.3%	0.4%
11월23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1월14일 주간		222k
11월23일	23: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11월		50.4
11월23일	23: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11월		47.8
11월24일	00: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	11월		54.7
11월24일	00:00	미국	신규주택 판매	10월	0.578M	0.603M
11월24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11월		50.7
11월24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잠정치	11월		53.2
11월25일	09:30	일본	도쿄 CPI	11월		3.5%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1월21일(월)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오렌지카운티 상공회의소(OCBC) 주최 행사 연설 (22일 오전 3시)

11월22일(화)

-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11월 서비스업 경기 전망 서베이 발표 (오후 10시30분)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임금과 인플레이션' 화상 행사 환영사 (23일 오전 1시)
- ⊙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칠레 중앙은행 연례 컨퍼런스 참석 (23일 오전 4시45분)

11월23일(수)

- ⊙ 뉴질랜드중앙은행, 금리 발표·기자회견
- ⊙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1월1~2일 통화정책회의록 공개 (24일 오전 4시)
- ⊙ 휴장국가: 일본(근로감사의 날)

11월24일(목)

- ⊙ 스웨덴중앙은행, 금리 발표·11월 통화정책보고서 발행 (오후 5시30분)
- ⊙ 휴장국가: 미국(추수감사절)

▶ 금주 세계 5대 이슈

⊙ 美 쇼핑시즌 개막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11월25일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시작돼 소비자 수요가 시험대에 오른다. 물가 및 금리 급등으로 소비자들의 쇼핑 수요가 줄었는지 관심이 쏠린다.

10월 소매판매는 자동차 등의 구매 증가에 힘입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며 소비자들의 형편이 더 좋아졌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소비자 지출은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소매업체들은 이번 어닝 시즌 엇갈린 실적을 내놨다. 지난주 월마트는 가격 상승에도 식료품 수요가 유지되리라고 보고 연간 매출 및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반면, 타깃은 연말 매출의 예상 밖 감소 전망을 제시했다.

⊙ 달러, 고점 지났다

올해 외환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덕분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졌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월 9.1%로 4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개월째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지수는 9월 114.78로 2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인데, 4분기 들어 4.5%가 빠지며 2017년 2분기 이후 최악의 분기 하락률을 향하고 있다.

이제 달러 약세론자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날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세계 경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전망이 한 달 전보다 더 어두워졌다고 밝혔다. 이번 주 세계 각국의 11월 기업활동 지표가 이같은 비관론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선진국 주도로 세계 산업계의 수축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PMI는 50을 하회해 경기 수축을 가리켰다.

영국은 이미 장기 침체에 직면해 있다. 유로존 경제 성장세는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고, 노동시장도 비교적 견실하다. 하지만 에너지 쇼크와 물가 상승 속에 경기 침체 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상태다.

⊙ 중국에 이목 집중

경제 부양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중국인민은행의 의지는 21일 대출우대금리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식시장과 산업용 금속 시장은 부동산시장 지원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이르기까지 친성장 정책 신호에 환호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 동안 베이징의 식당과 일부 기업에 제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 코로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한편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3일 금리를 75b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 월드컵 개막

12년 전 카타르가 개최권을 따낸 이후 부패와 인권침해 문제로 논란이 이어졌던 월드컵 축구대회가 마침내 20일 개막했다.

카타르는 국제무대에서의 입지 강화와 경제 부양 등 이번 월드컵의 성공 개최에 많은 것이 걸려 있다.

소비 증가, 정부 지출, 서비스 수출은 모두 카타르에 긍정적이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월드컵으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G20 선언문 : 중앙은행들, 통화정책 긴축 속도 계속 적절하게 조정할 것

11월16일 (로이터) -

16일 정식 채택된 주요 20개국(G20) 선언문 주요 내용:

- ⊙ G20 중앙은행들은 데이터 의존적이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 긴축 속도를 계속 적절하게 조정하고, 국가 간 파급효과를 제한할 것
- ⊙ 중앙은행들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어
- ⊙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물가 안정 달성에 중요하며,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뒷받침
- ⊙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많은 통화가 크게 움직였음을 인지하면서, 2021년 4월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의 환율 관련 약속을 재확인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美 중간선거 예상밖 민주당 선전에 고민 짙어진 투자자들

11월15일 (로이터)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보다 선전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양당 균형적 정권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를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이 네바다주 상원 의석을 가져감에 따라 남은 조지아주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돼 공화당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레드 웨이브' 가능성은 소멸했다. 다만 개표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은 여전히 하원에서는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50석, 공화당이 49석을 확보해 조지아주의 12월6일(현지시간) 결선 투표와 관계없이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권한을 가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하원 선거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 지역 지역구를 포함한 선거구들의 결과 확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 공화당이 212석, 민주당이 206석을 확보했다. 하원에서는 218석을 확보하면 다수당이 된다.

지난주 선거 이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끄는 양당 균형적 정권을 예상했다. 여전히 민주당이 하원까지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투자자들은 예상치 못한 정책과 지출이 실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퀀시 크로스비 LPL파이낸셜 수석 전략가는 의회에서 민주당의 힘이 강해질수록 행정부의 재정 정책과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이 충돌하게 돼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노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비 상승률이 7.7%로 예상치인 8%를 하회하면서 연준이 금

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증시가 급등한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해 연준이 긴축 정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당 균형적 정권이 이뤄지면 주요 정책의 변화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월가는 대체로 그러한 시나리오를 선호해왔다.

UBS글로벌자산관리 애널리스트들은 이달 초 노트에서 양당 균형적 정권 아래서는 민주당이 대규모의 재정 지출 패키지들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모간스탠리 애널리스트들도 지난주 선거 전에 민주당이 의회에서 영향력을 더 확대하게 되면 시장은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단기적으로 (이런 정책은) 연준 금리 고점 전망치를 높이면서 채권 수익률 상승과 달러 강세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당 소속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을 경우가 증시에는 더 좋았다. RBC캐피탈마켓츠가 분석한 1932년 이후 자료에 따르면 이 경우 S&P500지수의 평균 연간 수익률은 14%였다. 반면 행정부와 의회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경우의 평균 연간 수익률은 10%에 그쳤다.

물론 현재 S&P500지수가 연초 대비 16.2% 하락한 지금에 있어서는 어떤 (평균 연간 수익률) 시나리오가 실현되더라도 증시에는 나쁘지 않아보인다.

(권오신 기자)

((Ohshin.Gw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中 채권 가격 급락에 술렁이는 투자자들

11월18일 (로이터) -

중국 정부의 경제 부양 조치들이 발표되면서 중국 채권 가격 급락하자 투자자들이 서둘러 현금화에 나서고 있다.

자산관리자들은 채권 시장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에게 계속 보유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채권 시장의 강세가 끝났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 증시가 하락하고 경제 전망이 악화되면서 투자자들은 올해 초 채권 중심 투자상품에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일부 코로나19 관련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지원을 발표하면서 경제 전망이 개선되자 채권 가격은 급락했다.

중국 벤치마크 국채 수익률은 4개월 만의 최고치로 상승했고, 5년물 수익률은 10월 말 저점보다 30bp가 넘게 올라 2.721%를 기록했다. 10년물 수익률도 20bp가 넘게 올라 2.865%를 기록했다.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가격지수.CSI93091는 이번 달 1.5% 하락해 지난 수개월 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했다.

비록 투자자들인 만기 때까지 계속 채권을 보유한다면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겠지만 최근 자산관리 규칙이 순자산가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면서 자산 가치 변동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상심이 크다.

HZ은행자산관리는 16일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우리는 최근 시장 변동에 관련한 고객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고객의 편에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행의 자회사인 BOC자산관리도 투자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BOC자산관리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시장은 오르고 내릴 수 있다. 투자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굳게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다"면서 고객들이 최근의 변동을 "이성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중국 규제당국들은 최근 채권 매도세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들에게 유동성 상황과 자산관리상품들의 상황에 따른 대응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정통한 소식통들 3명이 로이터에 전했다.

(권오신 기자)

((Ohshin.Gw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1월18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340.3	-1.6%	-11.3%	-8.6%	유로	1.0325	-0.3%	-9.2%	-6.9%
100엔 대비	954.7	-0.8%	8.2%	+1.8%	엔	140.37	-1.1%	-18.0%	-10.3%
유로 대비	1,383.5	-1.7%	-2.3%	-1.9%	위안	7.1160	-0.3%	-10.7%	+2.7%
위안 대비	188.22	-1.8%	-0.6%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3,745.69	0.0%	-7.1%	+18.7%
코스피	2,444.48	-1.6%	-17.9%	+3.6%	나스닥	11,146.06	-1.6%	-28.8%	+21.4%
코스닥	731.92	0.1%	-29.2%	+6.8%	S&P500	3,965.34	-0.7%	-16.8%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493.90	1.4%	-21.6%	-4.9%
국고채 3Y	3.787%	-4.7bp	198.9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850%	-4.4bp	183.9bp	+67.6bp	미국채 2Y	4.530%	20.0bp	380.0bp	+61.0bp
국고채 10Y	3.801%	-9.3bp	155.1bp	+53.7bp	미국채 10Y	3.830%	2.0bp	232.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80.11	-9.8%	6.2%	+55.8%	한국 5Y	54.0bp	-10.4bp	31.9bp	-0.7bp
금(현물)	1,749.97	-1.2%	-4.3%	-3.6%	일본 5Y	30.2bp	-0.1bp	12.5bp	+2.1bp
TR상품지수	3,373.40	-2.1%	1.0%	+24.6%	중국 5Y	84.1bp	-8.0bp	42.9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